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²²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²³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²⁴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²⁵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21:22-25)

말씀에서 거듭남에 속한 것들을 설명할 때, 이 세상에서 부모를 통한 사람의 태어남이나 출생에 속한 것들로 하는 걸 보면, ‘임신’(conception), ‘태내 수정’(gestation in the womb), 그리고 ‘태에서 나감’(going forth from the womb), ‘출산’(birth)의 영적 의미는 거듭남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태에서 나감’은 속 사람에서 겉 사람이거나 자연적 사람 안

으로 가는(to go) 것을, ‘출산’은 영적 선, 즉 신앙의 진리들로 말미암아 형성된 체어리티의 선을 말합니다. 여기 ‘신앙의 진리들로 말미암아 형성된’이란 속 사람으로부터 겉 사람 혹은 자연적 사람 안으로 나아가는(going forth) 것을 말합니다. 선이 자연적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AC.9043)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9043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Seeing then that the things which belong to regeneration are expressed in the Word by the things which belong to the generation or birth of man from his parents in the world, it can be seen from the process of regeneration above described what is meant or signified in the spiritual sense by “conception,” by “gestation in the womb,” and what by “going forth from the womb,” and by “birth”; namely, that “going forth from the womb” denotes to go from the internal

출21:22-25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man into the external or natural, and that “birth” denotes spiritual good, that is, the good of charity formed from the truths of faith, going forth from the internal man into the external or natural man. When good is in the natural man, the man is a new man;

이는 오늘 본문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중 ‘낙태하게 하였으나’(And her births go forth)에 대한 주석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여인이 아이를 임신, 출산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임신한 여인’이라 하면 진리를 통해서 내면에 선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임신한 여인에 해당되며, 따라서 여인의 배속에 있는 아이는 우리 내면에 형성되고 있는 선을, 아이가 출생하는 것은 그 선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선이라는 자녀를 낳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²²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사람들이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진리에 대해 이해가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쟁하다가 진리를 주장하던 사람이 거짓 진리에 설득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진리

를 버리고,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거짓 진리가 그렇게 진리를 몰아내는 것을 본문에서 ‘**임신한 여인을 쳐서**’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임신한 여인은 진리를 통해 내면에 선을 이루어 가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임신한 여인을 때리는 것은 그의 진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선까지도 훼손하는 일입니다. 여기, ‘**진리를 빼앗을 뿐인데 선까지도 훼손함**’이라는 이유는 선은 진리 위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선은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똑 바르야 합니다. 기차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똑바른 레일 위를 달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대로 된 선과 진리라면 그들은 늘 같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면의 선까지도 훼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짓 진리 받아들이는 걸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폭행당하는 것은 거짓 진리에 설득당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영적 선이 사라다가 그만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낙태한 아이는 누구일까요? 낙태한 아이는

영적 선이 아니라 자연적 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비(非)진리를 진리로 알고 취하면 영적 선은 잃어버리고, 자연적 선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선이 그저 자연적이기만 한 것입니다.

※ 그러나 모르고 받아들였을 뿐 자기가 아는 진리 내에서 정말 순수와 진심으로 그 자연적 선에 힘쓴다면 그는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말입니다.

영적 선과 자연적 선은, 먼저 영적 선은 내적 진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선입니다. 그에 비해 자연적 선은 말씀의 겉 글자의 뜻 위에 형성된 선입니다. 말씀의 글자의 뜻은 내적 진리를 밝히기 위한 일종의 표상 같은 것으로서, 진정한 진리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십계명의 글자의 뜻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즉 자연적 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는 영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이며, 그래서 자연적 선 안에

출21:22-25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 생명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적 선을 잃어버리고, 자연적 선만 남았다는 것은 분명한 영적 퇴보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의 진리를 빼앗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벌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다른 해가 없으면’이란 자연적 선을 다치게 하지 않았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벌금을 내는 것’은 실제로 벌금을 낸다는 게 아니고, 그가 잘못 알고 주장했던 거짓 진리를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진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또 그것을 이웃에게 잘못 가르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영적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안 좋은 영향이란, 오늘 말

씀에서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한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악의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진리임에도 모르고 진리라 좀 심하게 주장했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주님은 진리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대로 그것을 바로 잡으라 하십니다. 그것이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벌금의 정도는, 주님께서서는 ‘**여인의 남편이 청구하는 만큼**’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인’은 선을 뜻하고요, ‘남편’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벌금을 낸다**’는 말은 거짓 진리를 바로 잡는데 필요한 새로운 진리는 그 바탕에 반드시 선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남편은 그 바탕에 선이 있는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선이 없는 것, 즉 진리라는 지식만 있을 뿐 그 실천인 선한 행실이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TV나 미디어에서 평론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진리는 있는데, 그 바탕에

사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칼처럼 위험합니다.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레일을 벗어난 기차처럼 위험롭고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벌금을 내되 여인의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내라고 하십니다. 즉 새로운 진리의 바탕에는 반드시 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벌금을 내는데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내라 하십니다. ‘재판장’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벌금을 내라는 것은, 거짓을 바로잡는 새로운 진리는 자기 안에 있는 선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선보다 많거나, 선이 진리보다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선을 저울 위에 올려놓을 때 균형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완전한 진리이고, 완전한 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은 세상에 진리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선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시험을 이기고 또 이기시면서 당신 안의 여호와와 완전히 하나

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선이 하나가 되셨는데, 그 하나 되신 모습을 영어로는 ‘union’ (合一)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결’이 아닙니다. 연결은 영어로는 ‘conjoin’이라 하는데, ‘union’은 그것보다 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따로, 그리스도 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으신 합일의 상태가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와 선도,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빈틈없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많고 진리가 적거나, 진리가 많고 선이 적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주님께서서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벌금을 내라 하셨습니다. 다음 23절입니다.

²³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갇되
생명은 생명으로,

‘다른 해가 있으면’이라는 말은 자연적 선마저 다치게 했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인들에게 자연적 선은 영적 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이며 징검다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선이 훼손되어 버리

출21:22-25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면 영적 생명마저 잃게 됩니다. 만일 좋은 뜻으로 진리 논쟁을 했다면, 적어도 타인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선의를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영적 생명을 죽였다면 그것은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이 악의적으로 거짓 진리를 세뇌하거나 주입하여 타인의 영적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주님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하시고요, 계속해서

²⁴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²⁵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른바 ‘보복의 법’으로 알려진 유명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행한 그대로 돌려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은, 남에게 이롭게 하면 그 선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고, 똑같은 이

치로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 악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복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은 그 자체로 축복을 지니고 있고, 모든 악은 그 자체로 재앙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7:12)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몸을 낮추고, 또한 베풀어야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연적 선마저 해치고, 그렇게 해서 영적 생명을 죽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옥의 영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인들을 직접 시험하기도 하고, 악한 자들을 사주해서 그들을 통해 신앙인들을 시험합니다. 지옥의 영들이 사람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즉 ‘생명을 죽인다’, ‘눈을, 이를 다치게 한다’, ‘손과 발을 다치게 한다’ 하고요, ‘불에 데게 한다’, ‘상하게 한다’, ‘때린다’ 등등... 이러한 모든 것이 지옥 영들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사람의 영적 생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 하나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해친다’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생명이라 하지 않고, ‘soul’이라 했습니다. ‘soul’은 보통 ‘혼’이라 부르는 생명입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사람에게서는 ‘혼’(魂), 즉 ‘soul’이라는 생명과, ‘영’(靈), 즉 ‘spirit’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혼’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 ‘영’은 선, 또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은 사람의 이성 가운데 담기고, ‘영’은 의지 안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람은 살아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한글 성경에서 ‘생명을 다치게 했다’는 것은 ‘혼’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또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다치게 했다 하는데, ‘눈과 이를 다치게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해력을 뜻합니다. ‘이’는 양식을 씹어 삼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선은 사람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과 이’로 표현되는 이해력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눈’은 내적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고요, ‘이’는 자연적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뜻합니다. ‘눈’은 안에 있고, ‘이’는 피부보다 더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눈과 이’는 진리를 이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로 표현되는 자연적 진리에 대한 이해력은, 음식을 씹는 것처럼 말씀을 머리로 추론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표현되는 내적 진리에 대한 이해력은 추론을 거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 내면으로 흘러들어오는 빛이 있는데요, 그 빛을 통해서 그냥 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직관과 같은 것입니다.

‘눈과 이’를 해치는 것이 진리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한 이해력을 빼앗는 일이라면, ‘손과 발’을 다치게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능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손’은 위에 있기 때문에, 내적 진리의 능력을 빼앗는 것이고요, ‘발’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 진리의 능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또 ‘데게’ 만들고, ‘상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을 빼앗는 것입니다. ‘데게’ 하는 것은 영적 선에 대한 애정을 빼앗는 것이고요, ‘상하게’ 하는 것은 자연적 선에 대한 애정을 빼앗는 것입니다. 성문서에는 ‘영적 선에 대한 애정은 속 사람의 의지 안에 있고, 자연적 선에 대한 애정은 겉 사람의 의지 안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영적 선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선입니다. 자연적 선은, 세상 법도를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자연적인 선입니다. 자연적 선과 영적 선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내적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들을 빼앗는 것이 ‘데게 만드는 것’이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데게 만드는 것, 상하게 하는 것’이 선에 대한 애정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면, ‘때리는 것’은 진

리에 대한 애정을 다치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셨으면 합니다. 지옥의 영들이나, 영들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신앙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영적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영적 생명을 고의로 해치는 사람들은, 그 악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영적 생명도 훼손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우리 안에 있던 선한 것은 사라지고, 자아에서 오는 이기적인 욕망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38, 39

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³⁸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³⁹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마 5:38, 39)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들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할 때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³⁴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³⁵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³⁶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³⁷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5:33-37)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진리는 주님께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실 때, 언제든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함부로 단정하거나 너무 강하게 주장해선 안 됩니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강변하거나, 또 그것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영적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임의로 진리가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진리에 대해 물어볼 때, 우리는 아는 것만큼만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말하는 것은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완전한 진리를 획득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진리에 대

출21:22-25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 깨달음을 주실 때 곧바로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잘못된 진리를 계속 고집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거절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주님의 은혜 진리가 끊임없이 갱신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보복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행한 악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구태여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에 대적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천국의 비밀 9049번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대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악은 진리와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은 세상 욕망에 빠진 사람, 자아에 매인 사람은 언제든지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

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해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 곳으로 돌아오리라 (렘31:8)

아멘

원본

2017-11-12(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2-13(D2)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